

### 2014광주비엔날레 포스터·로고 확정



“타전을 불태우라”를 주제로 내건 2014광주 비엔날레(9월5일 ~ 11월 9일)의 포스터 등 기본 EIP(Event Identity Program)가 확정, 발표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1일 차세대 그래픽 디자이너로 주목받고 있는 ‘슬기와 민’(Sulki & Min)이 디자인한 올해 광주비엔날레 EIP의 특징은 주제 ‘타전을 불태우라’가 지닌 강렬함과 역동성을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EIP는 운동하고 확장하는 불의 속성을 타이포그래피로 상징화하면서 관람객들에게 능동적인 참여를 제안하는 게 특징이다.

불의 순수성을 함축하는 워드마크는 주제를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전달하면서 낯은 체제와 관습을 버리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전시의 취지를 부각한다.

공식 포스터도 워드마크 타입 로고와 마찬가지로 선명한 타이포그래피로 주제를 부각시키면서 실험 정신을 중화색과 흰색, 청색과 흰색, 노랑색과 흰색의 대비를 통해 보여준다.

한편 최성민, 최슬기씨로 구성된 ‘슬기와 민’은 BMW와 구겐하임 미술관이 설립한 BMW 구겐하임 연구소의 그래픽을 담당했으며, 최성민씨는 2013서울국제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은바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아시아 예술극장 토크 11월까지 4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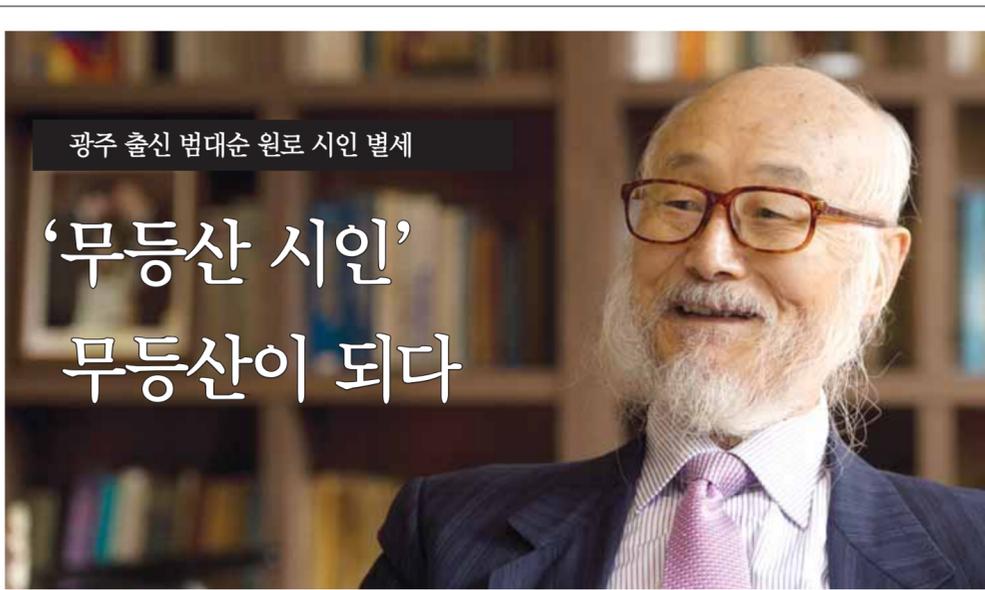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이 광주 지역 예술인들과 소통의 자리 ‘아시아 예술극장 토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예술극장의 비전과 개관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공연예술 기관 및 예술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1일 오후 7시 호남신학대에서 열리는 첫 번째 토크 ‘광주 예술가에게 듣다’를 시작으로 행사는 모두 4차례 진행된다.

7월 23일에는 ‘광주 예술가 프로그램’, 9월 24일에는 ‘광주 젊은 예술가 지원’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오는 11월 26일에 광주 예술가가 참여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선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062-234-038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 출신 범대순 원로 시인 별세

## ‘무등산 시인’ 무등산이 되다

“내게 시는 무등산입니다. 가까이 있기도 하고 멀리 있기도 하지요. 더러는 높고 깊으며 낮고 웅혼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춘하추동이 있고, 인생의 처음과 끝이 있고, 나와 나의 문학이 있기도 합니다. 시가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처럼 무등산을 오르는 것도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승전결 가운데 결이며 끝입니다.”

(2014년 2월호 예향(220호) 인터뷰 중에서)

### 1958년 등단...‘기승전결’ 등 30여권 펴내 계림동 자택 ‘범대순 시문학관’으로 꾸며

‘무등산 시인’ 범대순 전남대 영문과 명예교수가 21일 오전 9시 별세했다.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시인은 최근 병세가 악화돼 치료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다. 향년 85세.

피아니스트인 큰 딸 영숙(51)씨는 “한 달 전 전남대 병원에 입원하면서 컴퓨터를 옮겨달라고 말씀 하시 정도로 시 쓰기에 매달렸다”며 고인의 마지막을 회고했다.

평생 1100여 번에 걸쳐 무등산을 올랐던 시인에게 시는 무등산이고 무등산은 시였다. 그에게 산행은 “영혼과 육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고산고수(高山苦水)의 길”이었다.

1930년 광주시 북구 생용동에서 태어난 범 시인은 고려대 영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전남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활발한 시작 활동을 펼쳤다. 고인의 문단 등단은 1958년 ‘문학예술’에 고려대 은사 조지훈 선생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그의 시 ‘불도 우자’가 추천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재정난으로 잡지가 발간되지 못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로부터 7년 후 시집 ‘흑인고수 루이의 북’을 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단에 존재를 드러낸다. 당시 조지훈 시인은 발문에서 “충분히 역량을 지니면서도 그 슬한 동인지 활동에의 참여조차 무관심하면서

오직 스스로의 진실의 느끼운 바를 외로이 시로 써서 모았던 숨은 시인”이라고 평한다. 이후 시작된 시인의 시적 여정은 장강의 물처럼 유장했다. 60여 년 가까운 시작 활동을 통해 ‘기승전결’ ‘파안대소’ ‘산하’ 등 30여권의 시집과 에세이집을 펴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제 12회 영랑시문학상과 제29회 한국시인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동안 시인은 한국적 정서와 동양적 상상력이 내재한 시를 썼다. 무엇보다 그는 가난을 더욱 미천하게 만드는 자본주의 시대를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한편, 정반했던 선인들의 삶과 문화를 간결하면서도 서정적인 시어로 담아냈다.

그는 시인으로서의 삶뿐 아니라 영문학자로서의 삶에도 충실했다. 시를 쓰고 강의하는 틈틈이 시론집 ‘백지와 기계의 시학’ ‘트림의 미학’ 등을 발간, 시의 이론 정립에도 역점을 기울였다.

최근에는 60여 년 살아왔던 계림동 자택을 자신의 이름을 딴 ‘범대순 시문학관’으로 꾸며 시민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시림(詩林)’, ‘명상(冥想)’, ‘芝仁齋(지인재)’로 구성된 문학관에는 그의 문학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등이 비치돼 있다.

문학평론가 김형중(조선대 국문과) 교수는 “그의 수십 년에 이르는 무등산행이 다만 광기의 고행뿐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결국에는 ‘걸어보지 못한 길’을 남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자들의 운명 앞에서 ‘파안대소’할 수 있는 정신의 힘을, 그에게 선물했다”며 의미를 부여한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영 씨와 아들 희승(전남대 의대 교수), 영숙(피아니스트), 은경(신가지구 중앙아동병원장), 경화(동화작가) 씨가 있다. 빈소는 화순 전대병원장례식장 특실 1호에 마련돼 있으며 발인은 23일 오전 8시, 장지는 광주 영락공원이자.

한편 광주전남작가회의는 시인 범대순 선생 문인장을 22일 오후 7시 화순 전남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를 예정이다. 문의 061-379-7444, 010-9889-5548.

/박성진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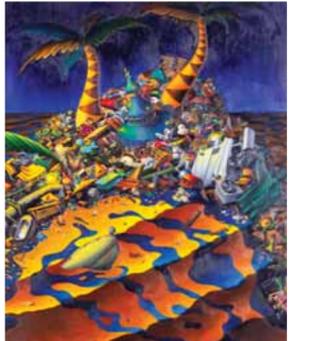


### 호남예술제 합창·합주 입상자

합창	합주
<심사위원> 김철웅(목포대 교수) 강재수(광양시립합창단지휘자)  ◇초등부 ▲최고상 2 전유진 외 50명(남평초) ▲금상 1 류은재 외 58명(광주송원초)	5 박준성 외 7명(살레시오초) ▲동상 2 공유진 외 3명(여수북초) 6 정명 외 12명(상사초) ◇중주(초·중등 혼성) ▲은상 1 정안하 외 4명(두오바이올린스쿨) ◇관악합주(초등부) ▲최고상 1 박민 외 66명(광주송원초) ◇현악합주(초등부) ▲동상 1 신찬우 외 8명(창평초) ◇관악합주(중등부) ▲금상 2 나은영 외 25명(광주중흥초) ▲은상 1 김인성 외 25명(반암초) 3 박은지 외 29명(나주초) ◇관악합주(중등부) ▲금상 1 김미혜 외 30명(양산중) ▲은상 2 박준서 외 45명(송정중)

### 제27회 광주시미술대전 수상작 선정 정명숙씨 한국화 대상

제27회 광주시미술대전에서 ‘Dorothy의 바다일기’를 출품한 엄기준(31·광주)씨가 서양화(수채화 포함) 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와 광주미협은 지난 20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제27회 광주시미술대전 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양화, 건축, 한국화, 문인화, 서예, 공예 등 6개 부문 6개 작품을 대상으로, 9개 부문 9개 작품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서양화 대상 엄기준 작 'Dorothy의 바다일기'

이번 미술대전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1263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모두 719점(특선 189점, 입선 515점)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와 작품은 ▲한국화 정명숙(39·광주) ‘여울지다’ ▲문인화 김영의(53·광주) ‘파초’ ▲서예 나동주(64·광주) ‘배두적전’ ▲건축 박민용·김예주·최지혜 ‘MEDITAINMENT’ ▲공예 김영희(51·남원) ‘인생’ 등이다.

각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의 상금이 시상된다. 시상식은 6월5일 오후 3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다.

수상작은 6월5~9일 같은 장소에서 지역 미술계를 대표하는 추천·초대작가 작품과 함께 전시된다. 062-222-805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SINCE 1990

# 이태리 가구 전문점

##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런칭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1899-0240